

농촌관광 · 경제 활성화 탄력

무주군 두문마을,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 공모 선정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1억 원을 확보(총 사업비의 50% 지원)했다.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자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촌이 보유한 자연경관과 농특산물, 음식, 역사, 문화유산 등을 적극 활용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게 된다.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은 이 사업을 기반으로 △낙화봉 불량을 감소를 위한 습기 차단 장비를 구매하고 △체험장 리모델링과 △야간경관 개선에 주

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기여도에 따라 재분배할 방침으로 우수 인재 유입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팀 박민재 팀장은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이 무주의 대표 농촌체험휴양마을인 두문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표 명물이자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낙화봉이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 운영과 자립성·수익성 제고, 농촌체험관광 경쟁력 향상에 더욱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 낙화봉이의 고장 두문마을은 주민들이 주축해 대 전통 민속놀이로 되살리고 ‘반딧불축제’와 ‘낙화놀이 축제’ 등을 통해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곳으로 주민 주도의 사업들이 마을 발전의 기반이 되며 귀감이 되고 있다.

또 마을에는 낙화봉이 보존과 전수활동을 위해 지어진 지상 2층 규모의 낙화봉이 전수관이 마련돼 있으며 홍보 영상관과 낙화봉 체험관, 낙화봉이 시연관, 사무실, 원터,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노후농공단지 기업 환경 개선 나선다

4년간 128억원 투입

진안군은 관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농공단지 구조조도와 사업의 첫 결실을 맺다.

이번 보고회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용역회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등 국가기금사업 2건에 대해 다뤘다.

기본 계획 결과보고회로 마련된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사업은 향후 3년간 총 28억원을 투입하여 활기찬 거북바위로 만들기, 즐거

운 거북바위 생태원터 더하기, 매력 있는 진입관문 바꾸기의 3가지 큰 테마를 주제로 30년 이상된 노후 농공단지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착수보고회로 진행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향후 4년간 총 100억원을 투입하여 임대공장 10개소, 농공단지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 스타트업 임대사무실 등 구축을 주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외부전문가, 주민, 입주기업,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으로 노후 농공단지가 활력있고 근로자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명품 농공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진안군 농공단지는 최근 입주기업체협의회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단지 내 기업 간 상생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일하고 싶은 기업환경이 조성되어 많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의 선도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군관광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지역 관광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5월 설립된 사단법인 진안군관광협의회(이사장 이재동)는 지난달 28일 산악초터운 흥삼실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진안군관광협의회의 회원 및 회원사 대표, 군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2024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등을 주요안건을 다뤘다.



사단법인 진안군관광협의회의는 지난달 28일 산악초터운 흥삼실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를 통해 지난해 진행된 주요 사업인 △진안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문화이벤트 정례화(발발페스타), △관광홍보 및 마케팅(마이라서포터즈, 소식지 발간 등), △관광 관계자 역량강화(마이라 아카데미 등) △관광거점 활성화(패키지개발, 관광 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2025년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견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전춘성 군수는 “정기총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진안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지난해 관광협의회가 출범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진안군 관광의 수준이 나날이 새롭게 높아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속적 발전”을 주문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군은 최근 주요 현안사업인 금강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금강유역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했다.

금강 국가하천 승격 협의 나서

장수군, 금강유역환경청·전북특별자치도청 방문

장수군은 최근 주요 현안사업인 금강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금강유역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금강유역환경청 방문을 통해 금강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 필요성을 알리고 타당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청과의 협의를 통해 최근 전북 내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오수천, 전주천 사례를 공유받고 금강 승격구간의 시점부와 종점부 설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장수군에서 발원하는 금강은 뜬샘에서 시작해 진안군 경계(천천면 연평리)까지는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진

안군 경계 이후부터 용담댐까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리 이원화로 인해 체계적인 하천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수군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재해예방과 치수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강의 국가하천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훈식 군수는 “다목적댐(용담댐) 운영에 따른 수변구역 설정으로 상류지역 주민들의 행위제한이 많은 상황”이라며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체계적인 홍수 예방 및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산림소득 분야 농림사업 추진

무주군이 올해 산림소득 분야 농림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임가 소득증대 및 임업경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으로, 사업비 15억원을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과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표고버섯 육식지원 등 8개 사업 추진에 투입한다.

2025년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한 무주군은 이를 고로쇠·자작 수액 정제 및 저장 창고 등 기반 시설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산림작물 및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임산물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야 지역 회복에도 힘을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드림스타트 방문학습지 지원

무주군이 학습환경이 열악한 아동들을 위한 드림스타트 방문학습지 및 학원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드림스타트 대상)의 유아 및 기초학습 부진 아동(12세 이하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30명에게

최대 2과목까지 지원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3월부터 10개월간 학습지 교사의 방문 수업과 지역 내 학원(국어, 영어, 수학)과 연계한 학습을 진행할 예정으로 기초학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공직자 대상 적극행정 교육 실시

장수군이 최근 군민회관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혁신되는 세상,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가천대학교 홍의택 교수가 강연에 나섰다. 홍 교수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현상에 대한 맞춤형 설명으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위기 대응을 위해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특히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국내의 사례를 확인하고 장수군의 인구구조 변화에 유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군은 공직자들의 적극행정과 혁신을 토대로 지역이 당면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 행정으로 장수군의 긍정적인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봄철 산불 방지기간 일부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4일부터 통제되는 탐방로는 안성탐방지원센터~동엽령(4.4km), 송계사~백암봉(6.5km) 등 원정 통제 7개 구간, 인월담~설천봉(5.1km), 함적봉~영각탐방지원센터(17.5km) 부분 통제 2개 구간이며, 개방 탐방로는 설천봉~함적봉(0.6km), 구전동탐방지원센터~백련사~함적봉(8.5km), 덕유대 자연학습장~안심대(3.3km), 황정~삿갓재(3.4km), 서창공원지킴터~안국사(3.8km), 신암담~백련사(1.4km) 6개 구간이다.

아울러,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시 자연공원에 의해 통제 탐방로 출입 등 출입금지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 등 금지행위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